

부처님 자비 민들레 흠뻑되어 '힐힐'

부산 무료급식소 '민들레 밥집'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개최

"여기는 밥 보는 곳이 아닙니다."
중년의 여성에게 두타 스님이 던진 말이었다. 오히려 많았고 경찰에게 연행되기도 여러 번. 부산 사직동과 칠산동에서 무료 급식소 민들레 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두타 스님은 시청 지하월영에서 특별한 탁발수행을 하고 있다. (사진 위)

"혼자 사는 노인들 중에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법적으로는 자녀가 있지만 부모를 부양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우리들 주변에 많다"며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실제로 밥을 먹여줄 수가 없어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민들레 밥집은 무료 급식 뿐 아니라 노인 치료비, 기름값,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을 제공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는 장소이다. 거동조차 못하는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위해 도시락 배달도 하고 있는 두타 스님은 "매달 8000여명의 삶이 필요해 탁발과 자원봉사,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하는 실정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365일 쉬지 않고 밥집을 운영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웃의 소리가 더욱 커지기만 한다"고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민들레 밥집은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 '민들레 흠뻑 나눔 장터'를 5월 18일 부산 시청 광장에서 개최했다. (사진 아래)

3개월 동안 모든 기증품들을 바자회에서 팔고 모든 수익금 전액은 민들레 밥집 개소와 무료급식에 쓰일 계획이다.

"자급자족을 하기 위해 '민들레 흠뻑 나눔 장터'를 열어 지속적인 바자회를 개최하고 안정적인 수익금으로 더 많은 민들레 밥집을 만들겠다"는 두타 스님은 "기증품 관리, 판매방사자들과 생활재활용 물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님은 "남에게 베풀 때는 가장 좋은 것을 주어야 선물이 되며, 바자회를 통해 봉사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바자회는 실생활 속에서 남에게 베푸는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포교의 현장"이라고 말했다.

옷, 책, 주방용품, 신발, 가구 등 재활용품 기증으로 민들레 자비원을 후원할 수 있다. (051558-2108 후원계좌 150031-52-137521 (농협 예금주 남창현) 하성미 기자

"내금강 성지순례 중단하라"

예비역장성불자 모임, 조계종 사업추진 반대 성명서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오는 6월부터 내금강 성지순례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시각을 달리하는 성명서가 발표됐다.

예비역장성불자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의기독교교도총연합회(이하, 대불총)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금강산 고찰(古刹)을 성지 순례하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관광 수입은 김정일의 폭압 정치체제를 지탱시켜주고 핵폭탄과 미사일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호국 불교의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는 우리 불교도들이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에 우려하지 않

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불총은 자체 홈페이지 (nabucco.org)를 통해 발표한 성명서에서 "금강산 관광의 북한 측 계약자인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는 조선노동당 대남사업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이라며 "지금은 불교도들이 북한 내금강 성지순례를 할 때가 아님을 천명하는 바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장종훈 스님은 "성명서를 아직 보지 못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는 하겠지만 성지순례 프로그램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대한불교 선종 제2대 종정 지원당 도원 스님 입적



대한불교 선종 제2대 종정 지원당 도원 스님(사진)이 5월 20일 새벽 7시경 경주 금강사에서 입적했다.

영결식은 대한불교 선종 장례위원회(위원장 정관, 총무원장) 주관으로 5월 22일 금강사에서 열렸으며, 49제 회향법회는 7월 7일 오전 10시 금강사 대법당에서 봉행된다.

김원우 기자

서울 성북동 대성사 일본인이 일주문 불사



일본인이 서울 성북동 대성사 일주문 불사를 했다. (사진)

5월 24일 낙성식을 봉행한 대성사 일주문은 지난해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에 참석한 일본인 아루가와 마사히루씨가 법성종 종정 덕담 스님에게 일주문 건립을 발원해 완성됐다. 일주문은 올해 1월 초 착공해 5개월 만에 건립됐다. 김원우 기자

서울 열린선원 개원 2주년 조상님 합동천도대제 봉행

저자거리 포교원인 서울 열린선원(원장 법현)은 6월 3일 오전 10시 30분 개원2주년 기념 조상님 합동천도대제를 봉행한다.

이날 천도제는 원장 법현 스님이 직접 제작한 <한글법요집>으로 신도들이 직접 천도의를 봉행할 예정이다. 또 오후 2시에는 2주년 기념의식을 봉행하고, 2년 동안 행사 때마다 걸었던 현수막을 전시해 행사의 진행방향을 살펴보는 기회를 갖는다. 김원우 기자

"전통사찰 규제 완화 시급"

부산 범어사, 해결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건축물 대장도 없고 적용 가능한 관련 법률이 없어서 우리가 안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못해 주는 실정입니다."

부산 범어사 경내 구조물 현황과 건축물에 관한 현황을 구청에 알려 건축대상정비요청을 했을 당시 구청의 답변이다.

범어사(주지 대성)가 5월 22일 설법전에서 이재웅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범어사 사례를 중심'으로 전통사찰 규제 완화 방안을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윤석진 교수(경성대학교 기업경영학과)는 "전통 사찰 중부규제로 인해 수행과 포교를 위한 공간 및 전통 문화 체험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사찰 경내 만이아

도 건물의 증축 및 개축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해결 방안 모색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진 교수는 "범어사 산내 암자와 금정산 화재 및 문화재 보호를 위해 만성암, 원호암, 북문, 다비장에 이어 봉수대까지 소망도로 개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범어사 총무국장 범산 스님은 "범어사는 우리나라 교구본사 중 유일하게 대도시 안에 소재한 대형사찰"이라며 "범어사 및 금정산 일원을 시민공원, 시민사찰로 만들고 역사문화 관광의 중심지로 개발할 뿐 아니라 불심의 수도 부산에 위치한 선찰대본산으로서 세계적인 선문화 터전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성미 기자

불교산악인회 창립 10주년 법회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연합회장 양훈동)는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아 6월 10일 부산 범어사에서 제10차 '대한불교전국산악인 전진대회'를 개최한다.

전진대회는 오전 9시부터 금정산 산행과 쓰레기 줍기를 시작으로, 오

후 2시에 법회를 봉행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조계종 포교원장 혜종 스님의 법문과 무분별한 자연 환경 훼손을 막자는 성명 발표도 이어진다.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는 1997년 창립한 단체로, 현재 1만5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02)735-0408 여수형 기자

분당에 불국사 포교원 석가사 개원

지역 어르신 위한 경로잔치 열어

분당지역에 불국사 포교원 석가사(주지 종상)가 문을 열고 지역포교에 나섰다. 석가사는 5월 20일 불사회 향법회를 갖고 경로당 어르신과 독거노인을 위한 경로잔치를 열었다.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은 법회에서 "누구에게나 갖춰진 불성을 바로 보고, 성불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생활할 때 성불의 소중함 인연이 자라게 된다"며 석가사가 지역 포교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당부했다.

석가사 주지 종상 스님은 "월산 대중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진행한

불사가 완공돼 감개가 무량하며 불사에 음양으로 공덕을 베풀 사부대중에게 감사드린다"며 "석가사는 도심 포교와 전법 수행 도량으로 경전 공부와 참선 수행을 중심으로 알차게 실행하는 도량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향법회에는 불국사 주지 성타, 학장 덕민, 동국대 교수 보광 스님 등과 고홍길·인태희 등 국회의원, 이수영 성남시의회의장, 김인규 성남시공무원불자회장 등 지역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불국사·청계사·석가사 신도 500여 명이 동참했다.

임연태 기자 yilm@buddhapia.com



태고종 전북교구 스님들이 공양미를 부안군에 전달하고 있다.

작은 정성 모아 큰 이웃사랑

태고종 전북교구, 공양미 100가마 모아 부안군에 전달

태고종 전북교구 총무원(총무원장 법운)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5월 18일 교구 산하 200여 사람에서 십시일반으로 모은 공양미 100가마를 부안군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전북교구 총무원장 법운 스님은 "오늘 전달된 백미에 는 태고종 전북교구 산하 200여 사람 종도들이 어려운 이웃과 마음을 함께 나누려는 보살도 정신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전달식에는 백용사 수종(前 태고종 총무원 부원장), 총무원장 법운,

규정국장 진성 스님 등 교구 국장스님들과 유영렬 부안부군수 및 직원 20여명이 참석했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바로 잡습니다

분지 629호 A5면 특별기고 제목 '부처님오신날과 Buddha's birthday'로 바로 잡습니다. B4면 보원 스님 관련기사 중간제목의 '찬치상'은 '잔치상'으로 바로 잡습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해일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디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예시마루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732-0909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대전충북지사 : (043)732-5580 영주지사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저자거리 수행도량 열린선원 불사안내

저자거리 수행도량을 표방하며 2005년 6월 5일 개원한 저희 열린선원에서는 개원 2주년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은 불사를 짓고자 하오니 인연있는 불자님들께서 수희동참하여 성불교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개원 2주년 기념 법회 및 조상님 합동 천도대제

- 날 짜 : 6월3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4시
- 제1부: 합동천도대제(한글법요로 신도님과 직접 봉행)
- 위패봉안비 : 자율보시
- 제2부 : 2주년 기념법회(공양 후 오후 2시부터)
- 제3부 : 축하연

◆제 7기 열린불교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 교육내용 부처님의 생애, 불교의 세계관과 사찰의 구조, 불교의 기호예절과 예불 불교의 수행 이론 및 실계(구차계정, 37도품, 사마타, 위빠사나, 관화선 등)
- 1박 2일의 템플스테이와 3귀5계 수계 후 수행단계인 연기의 기입
- 개강일시 : 6월 16일(토) 오후 4시
- 교육기간 : 6월 16일 ~ 9월 2일
- 교육비 : 무료

◆정기법회

- 새벽예불 : 새벽5시(주력가이므로)
- 가족법회 : 매월 첫 일요일(일반가족)
매월 셋째 일요일(중앙대학교 불교학생 동문 가족)
- 지회(蓮池會) : 열린불교 아카데미
- 동문법회 = 경전강독 및 느낌 나누기 : 매주 토요일 오후 1시30분 ~ 3시

◆가족 원불(願佛)봉안 안내

- 가족의 수명장수와 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원불을 모십니다.
- 1인 1불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원불도 모심
- 1부처님 모시는 비용 : 30만원
- 불사문의: 02-386-4755, 4720 다음카페 : 열린절

후원
계좌

우리은행 1005-000-974553(열린선원)
국민은행 429501-01-266034(열린선원) 신한은행 436-01-029146(열린선원)

저자거리 수행도량 한국불교태고종 열린선원 원장 법현 합장